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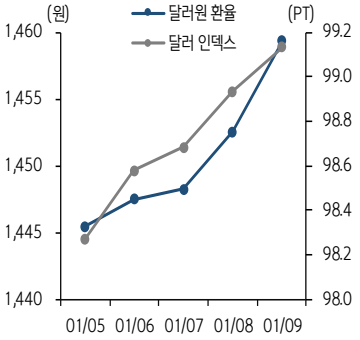
2026-01-12

FAFO 트럼프, JOMO 금통위

FX Talk & Insight : 금주 1,445~1,470원 전망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압송한 데 이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전후(戰後) 국제 질서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 느닷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달러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달러·원 환율도 상승. 미국 상호관세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어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덴마크와 협의 예정. 미국이 앞마당으로 간주하는 서반구에서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행보에 중·러 반발도 불가피. 현기증이 시장에도 전이될 소지

외환시장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45	1470
달러엔	157.0	159.0
유로달러	1.158	1.173

집권 2년 차를 맞은 트럼프의 야욕이 꿈틀대고 있다. 지난해 성탄절에는 기독교인 학살에 대한 응징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나이지리아를 공격했고, 새해부터 체포인지 납치인지 가늠이 안되지만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공습했다. 그리고 쿠바와 콜롬비아에 대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미를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최근에는 또 다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미군 활용이나 매입을 논의하는 등 그린란드를 미국 지배하에 놓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로 인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어쩌면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겨있는 힘을 앞세운 트럼프식 돈로주의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보고서에는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부담 전가와 에너지 주도권 회복 그리고 서반구에 대한 지배력 확장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즉, 트럼프 2기 미국의 국방안보전략에서 ① 무역 전략이 미국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② 핵심 목표인 본토 방어를 위해 정책적 최우선 순위로 서반구 장악을 설정하는 한편 ③ 중국 견제를 위한 무역 개방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동맹국과의 집단 방어 등을 주요 사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 공습은 본토 방어, 에너지 확보 및 중국 견제 등 다목적을 가지고 단행된 예고된 결과일 수 있겠다.

실제로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 중남미는 미국과 중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일례로 베네수엘라의 경우 중국은 이미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고, 칠레에는 리튬 생산 기업의 지분을 늘리는 등 미국의 앞마당에서 영역을 늘리며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제조업 생산기지인 멕시코를 제외할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중국과 중남미간의 교역이 미국을 앞지르는 등 경제-정치 등의 영역에서 중남미와 중국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 사실 마약은 명분에 불과할 뿐, 서반구의 장악과 중국의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미국 트럼프와 차기 왕좌를 노리는 중국 시진핑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가 잠재적인 적(?)들을 향해 까불지 말라며 'FAFO'를 날렸지만 시장은 아직 가볍게 여기는 듯 보이기도 한다. 힘의 우위로 미국에 반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중국도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하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경제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안보 등의 영역까지 미국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모양세라면 돈의 흐름과 환율 역시 미국에 대한 선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유발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기간 일상화될 것이고, 이로서 전략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한편 한은은 이렇게 복잡해진 대내외 환경 이래 섣불리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못하며 한동안 잊혀진 존재인 'JOMO'로 인식될 듯하다. 물론 물가 안정과 주택 대출 둔화가 금리인하의 희망 회로를 돌리겠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과 애당초 펀더멘털로 설명하기 어려운 환율의 고공행진을 경계하고 있어 금리인하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게다가 미국 고용 우려에도 상향조정되는 GDP의 조합 사이에 물가를 안심하지 못하는 연준의 행보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가능성도 걸림돌이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Weekly
FX Economist View
FAFO 트럼프, JOMO 금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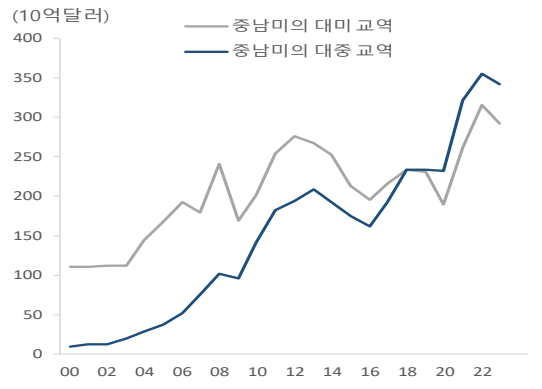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 노출. 비록 시장의 불안감 크지 않았지만 돈로주의 표출로 인해 주기적 발생 가능성 커져

트럼프가 국가안보전략상 서반구 장악을 최우선 순위로 정한 만큼 정치-지정학적 분쟁 불가피. 중남미로 무역 영역 확장하는 중국과 충돌 소지

미중 패권 경쟁의 싸움터가 된 중남미

멕시코 제외시 미국 능가한 중국의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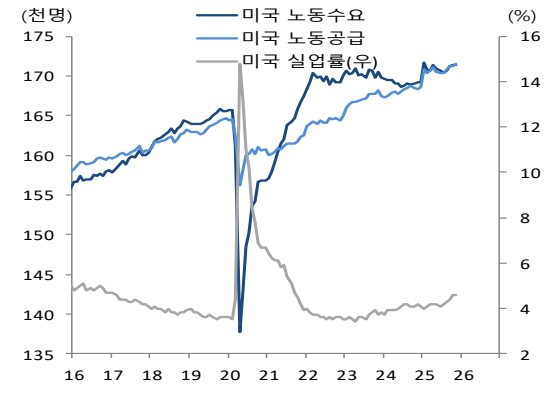


자료 : WTIS, Google,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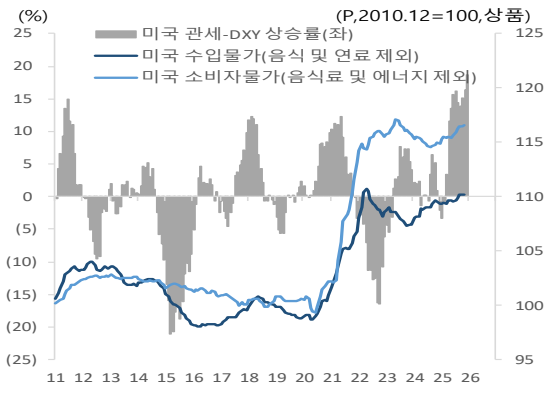
미국 고용 둔화되고 있으나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실물경제 충격 제한. 이민 제한 등으로 공급도 정체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관세 충격 분산했던 미달러의 수위 낮아진 가운데 수입가격을 경유해 점진적으로 물가 부담으로 작용 소지. 시장은 전월비 0.3% 상승 예상

코로나 착시 더해 기술 혁신으로 노동 수요 정체



완만한 속도지만 오름세 이어지는 미국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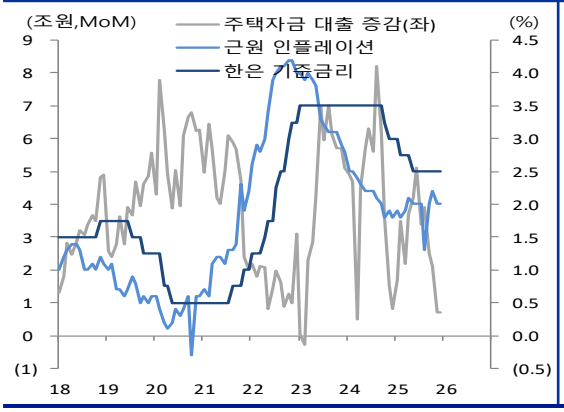


자료 : IMF, FRB,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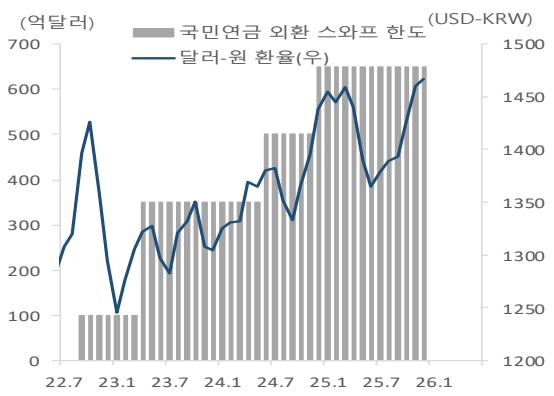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우려보다 견조해 금리인하 서두를 유인 떨어져. 부동산 및 환율 안정에 정책 집중된 만큼 한은 금리동결 전망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환율 안정 의지 표명 및 시장 개입으로 단기 고점 확인, 상승 저지. 다만 대내외 변수 등을 감안시 중장기 안정은 미지수

물가와 부동산 대출 통제로 한은 부감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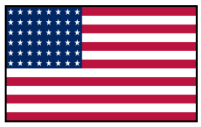
하지만 환율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경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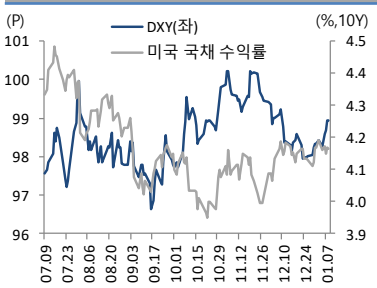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FAFO 트럼프, JOMO 금통위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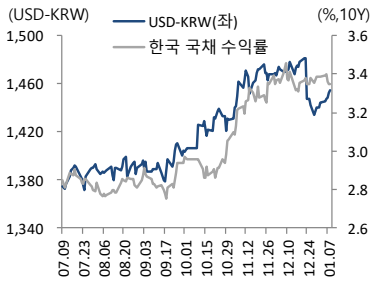


DXY(미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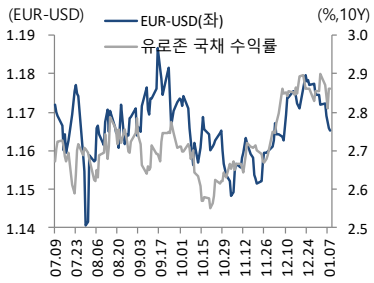
리뷰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 그린란드 매입 등 서반구 장악을 위한 트럼프의 야욕 드러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미달러 자극. 미국 노동생산성 확장세 이어진 가운데 실적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시장도 상승세 전개된 점도 달러 반등에 일조
프리뷰	트럼프 상호 관세 대법원 판결,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등 굵직한 이벤트 거론되고 있어 한동안 변동성 확대 소지. 고용지표에 이어 미국 물가 지표 시장 경계감 자극 여지. 트럼프 먼로주의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럽 불안감 커지며 오히려 미달러 지지

USD-KRW(한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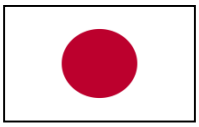


리뷰	달러화가 전년 말 하락한 탓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환율이 주 후반 1,450원 상향 돌파.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이후 그린란드를 눈독 들이고, 중국의 반발 더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달러 강세에 일조
프리뷰	미국이 서반구에 대한 지배권 주장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가능.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 달러 강세 뒷받침하는 가운데, 국내 달러 수요 우위 구도로 인해 환율 추가 상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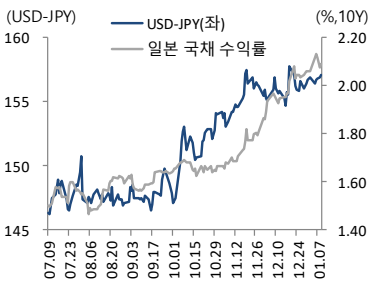
EUR-USD(유로화)



리뷰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NATO 동맹국인 덴마크와 미국이 충돌하는 동맹 내 위기 부각.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로화에 부담 안긴 데다, 작년 12월 달러 약세 이후 저가 매수 유인 증가해 유로화가 1.17 하향 돌파
프리뷰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핵심국이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지지하며 미국에 제동 걸었으나,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 향후 유럽 내 분열 및 미국과 타협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유로화 하방 압력 지속될 듯



USD-JPY(일본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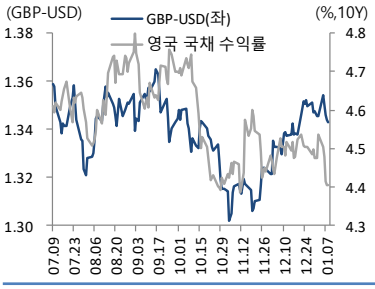
리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상승했으나 엔화는 움직임이 제한. 주초 환율이 157엔 상회한 뒤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 전환하여 주 후반까지 완만하게 상승. 일본 11월 근로자 현금 수입 등은 기대 밑돌며 일본 금리 인상 기대에 찬물
프리뷰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모멘텀은 강하지 않은 상황. 과거에 비해 금리 민감도가 낮아졌고 일본 정부 재정 확대에 반응했던 모멘텀도 둔화. 투기 세력 포지션도 대체로 균형에 가까워 완만한 환율 상승 기조 유지될 듯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FAFO 트럼프, JOMO 금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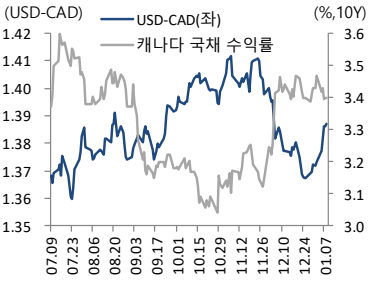
FX Navigator

GBP-USD(영국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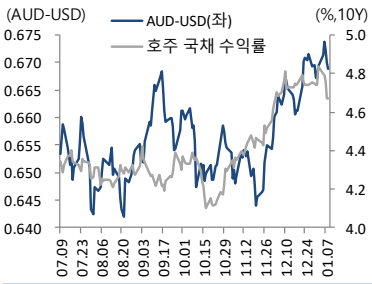
리뷰	미국이 反美 세력의 전초기지였던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압송한 직후 주초 GBP가 상승했으나 그린란드로 불똥 튀며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영국 12월 PMI가 예비치 대비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GBP가 1.34 향해 후퇴
프리뷰	유럽 주요국이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지지하며 미국의 야욕에 제동 걸었으나,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 향후 유럽 내 분열 및 미국과 타협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GBP 하방 압력 지속될 듯

USD-CAD(캐나다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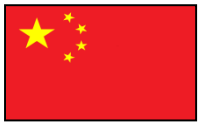


리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며 서반구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자, 세력권에 있는 캐나다 통화가 직격탄을 맞으며 뚜렷한 약세 연출. 주초 1.37 초반이었던 환율이 일방적으로 상승한 끝에 주후반에는 1.39에 근접
프리뷰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서반구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 이는 CAD에 특히 부담. 다른 통화들 대비 취약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소강 국면 가능성은 존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도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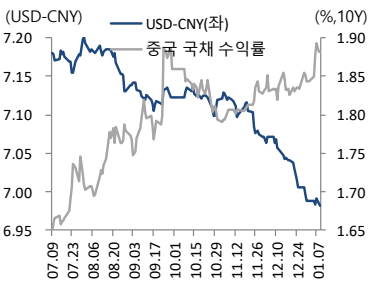
AUD-USD(호주 달러)



리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며 서반구에 대한 통제권 주장하고 그린란드 향한 야욕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AUD도 동반 상승. 그러나 주 후반 원자재 가격이 상승폭 반납하면서 AUD도 0.67 수준으로 반락
프리뷰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서반구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 미국이 자원과 지정학적 가치를 노리고 서반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기에, 원자재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AUD를 지탱하며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



USD-CNY(중국 위안)



리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며 서반구에 대한 통제권 주장하면서, 그간 베네수엘라에서 경제적 이권 취했던 중국이 강력 반발. 그러나 남중국해나 대만 등 핵심 이익에 비해 전략적 가치 떨어지므로 액션은 자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환율은 소폭 상승
프리뷰	연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며 달러 저가 매수세가 환율 추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까지 드러내며 중국과 외교적 충돌을 불사할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 상승에 우호적일 듯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FAFO 트럼프, JOMO 금통위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1-13-2026 8:50	JN	BoP 경상수지	Nov	¥3587.4b	¥2833.5b	90
1-13-2026 22:30	US	CPI (전월대비)	Dec	0.30%	--	97
1-13-2026 22:30	US	Core CPI MoM	Dec	0.30%	--	78
1-14-2026 0:00	US	신규주택매매	Oct	705k	--	89
1-14-2026 4:00	US	Federal Budget Balance	Dec	--	-$173.3b	75
1-14-2026 6:00	SK	수출 물가 지수 YoY	Dec	--	7.00%	54
1-14-2026 8:00	SK	실업률 SA	Dec	--	2.70%	87
1-14-2026 22:30	US	PPI 최종수요 MoM	Nov	0.20%	--	93
1-14-2026 22:30	US	PPI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전월비	Nov	0.20%	--	70
1-14-2026 22:30	US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Nov	0.40%	0.00%	94
1-14-2026 22:30	US	경상수지	3Q	--	-$251.3b	74
1/14/2026	CH	수출 YoY	Dec	3.00%	5.90%	82
1/14/2026	CH	수입 YoY	Dec	0.70%	1.90%	78
1/14/2026	CH	무역수지	Dec	$114.00b	$111.68b	80
1-15-2026 0:00	US	기존주택매매	Dec	4.22m	4.13m	87
1-15-2026 19:00	EC	산업생산 SA MoM	Nov	--	0.80%	60
1-15-2026 22:30	US	수입물가지수 전월비	Nov	-0.20%	--	79
1/15/2026	SK	BOK Base Rate	15-Jan	2.50%	2.50%	97
1-16-2026 6:00	US	순장기TIC흐름	Nov	--	$17.5b	73
1-16-2026 23:15	US	광공업생산 MoM	Dec	0.20%	0.20%	90
1-16-2026 23:15	US	설비가동률	Dec	76.00%	76.00%	63
1-17-2026 0:00	US	NAHB 주택시장지수	Jan	--	39	52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53.8	208.1
고가	1,461.7	209.0
저가	1,452.1	208.0
종가[1)]	1,457.6	208.9
전일비	7.0	1.1
평균환율	1,455.7	208.4
NDF(1M)	1,458.3	
거래량	117(억불)	366(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59.40	11.15
JPY/KRW	923.16	-2.99
EUR/KRW	1,697.82	5.14
GBP/KRW	1,955.65	3.69
AUD/KRW	975.71	2.75
CAD/KRW	1,048.75	1.20
USD/JPY	157.89	1.02
EUR/USD	1.1637	-0.0023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2.760	0.023	2.285	0.03
2Y	2.919	0.024	2.440	0.02
3Y	3.041	0.027	2.665	0.03
4Y	3.124	0.034	2.785	0.05
5Y	3.179	0.037	2.910	0.06
7Y	3.261	0.046	2.930	0.04
10Y	3.330	0.051	2.915	0.06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70	0.00
통안 1년	2.52	0.00
통안 2년	2.85	+0.02
국고채 3년	2.94	+0.03
국고채 5년	3.19	+0.03
국고채 10년	3.39	+0.04
국고채선물(3년)	105.39	+0.03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33	7.00	2.74%
3M	-445	15.00	2.40%
6M	-940	10.00	2.35%
1Y	-1,690	10.00	2.35%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3.50	0.026	3.49	0.050
2Y	3.53	0.063	3.37	0.059
3Y	3.59	0.063	3.39	0.061
5Y	3.75	0.045	3.49	0.050
10Y	4.17	0.018	3.80	0.026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4,586.32	+33.95	+0.75%
미국 DOW	49,504.07	+237.96	+0.48%
중국 상해종합	4,120.43	+37.45	+0.92%
일본 NIKKEI 225	51,939.89	+822.63	+1.61%
영국 FTSE 100	10,124.60	+79.91	+0.80%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59.12	+3.13
금 (선물)	4,500.90	+38.40
3M TERM SOFR	3.65	+0.00
3M EURIBOR	2.02	-0.01
KOR 5Y CDS	20.84	-0.57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